

#2017. 01. 16.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워크숍 자료 목록

1. 활기 활동의 변천사 및 그간의 활동평가 (발제 : 한낱)
2. 활기의 현재적 고민들 (발제 : 공현)
3. 청소년활동가들은 활기에 무엇을 바라는가
: 활기 바깥에서, 활기를 말하다 - 인터뷰를 통해 살펴봄 (발제 : 난다)

1. 변천사 및 그간의 활동평가

발제 : 한날

2010년~2016년, 활기 활동을 돌아보다

“2012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항해를 멈추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성장과 함께 네트워크의 소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청소년 단위로 옮겨가기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마감은 네트워크의 후신(後身)이라 할 ‘활기’의 시작과 함께 결정된 일이기에 서글프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운동의 밑불이 될 것이기에 뜨거운 안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과란만장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사 중

과란만장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역사를 마감하며, 그 후신으로 활기가 등장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활기를 시작했는지 위의 발간사에 잘 담겨있음.

활기의 탄생 목적에 비춰 지난 7년간의 활기 활동을 정리 및 평가해보고자 함. 2016년, 더욱 침체기 국면에 들어섰던 활기에 소생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함.

=====

● 2010년 ~ 2011년 : 조금씩 불을 지피다

2009년 청바다(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공존하며 <활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기

네트워크 5년차를 맞이하며 청소년활동의 지속가능성, 청소년활동가들의 생계와 활동역량 등에 대해 주로 고민했던 시기

<p>[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 프로젝트 팀 ○ 조직형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소속단체) - 개굴의 제안서(2010.02.10.)를 바탕으로 모임이 꾸려짐. * 코디(책임활동가): 엠건 ○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공동기획단
- 후원행사 ‘햇유스’
- 저공비행
- 사무실 마련하며 공간 운영에 대한 고민 시작 (문래동, 나뭇아지트 시즌1)

[2011년]

- 이름: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 프로젝트 팀
- 조직형태: 여러 단체들의 연대체 (2010년과 같음)
- 조직체계
 - *활기 전체 코디: 둠코
 - *활기 전체 회계: 박유리
 - 운영팀(둠코, 박여사, 거부기, 쩡열, 엠진, 아즈): 기금 운영, 수익 사업 마련, 전체 운영, 지원 심의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기로 함.
 - 저공비행팀(엠진, 어쓰, 형우, 거부기, 공기): 저공비행 준비 및 참여.
 - 교육팀(멤버는 누구였을까?): 외부강좌, 기능/실무 교육(구 선택비행)을 전담.
 - => 8월12일 전체 회의록: 저공비행팀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회의와 합쳐서 논의/결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옴. (이후로는 2011년의 회의록이 없음)
- 주요사업
 - ‘저공비행 시즌2’를 비롯한 청소년활동가들의 공부/세미나 모임, 교육/강좌를 준비했으나 4월 이후 흐지부지.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활동 침체와 함께 활기 프로젝트도 힘 있는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음.

● 2012년 ~ 2014년 상반기 : 허덕이면서도 이것저것 해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발전적 통합/전환 (2012.3) 활기의 전성기. 청소년 운동 안에서 활기가 해야 할 역할이 많았던 시기. 단체 멤버십도 늘려갔고, 구성원 숫자도 많았음.
 재정적 기반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후원행사를 열거나, 여러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했음.

[2012년]

- 2011년, 네트워크와 활기팀 모두 어려움을 겪었음. 새로운 도약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의 가닥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짐.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간담회 이후 청

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공식적으로 통합+전환됨.

○ 조직형태/체계 : 단체멤버십(들, 진보교육연구소, 문화연대, 아수나로) + 개인활동가멤버십

<상반기>

- 책임활동가: 파이루, 둠코
- 운영멤버: 개굴, 한낱, 박유리, 정소연, 수수, 파이루, 둠코, 다영, 어쓰, 난다
- 교육체계팀: 유리, 또연, 둠코, 어쓰, 난다, 한낱, 수수, 다영
- 기금조성팀: 개굴, 또연, 파이루

<하반기>

- 책임활동가: 파이루, 둠코
- 실용 강좌 팀: 둠코, 윤희, 어쓰, 난다
- 기금 조성 팀: 파이루, 박유리, 개굴, 한낱
- 월례 간담회 기획 분담:

9월 11일 (조직화 2: 둠코, 유리, 파이루) / 10월 16일 (나이주의: 둠코, 한낱, 유리)

11월 6일 (정치적 권리: 난다, 개굴, 어쓰) / 12월 4일 (재밋는 주제: 난다, 한낱, 어쓰)

○ 주요사업

<상반기>

- 교육체계팀: '저공비행 월 간담회 준비팀'과 '저공비행 실용강좌 준비팀'으로 나누어 실무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함.
- 기금조성팀: 청소년 휴카페, CMS 모집 방안 등 고민했으나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함.
- 월간담회팀: 물음표간담회(3월), 학생인권조례(4월), 아동인권조례(6월), 조지과(7월)
- 실용강좌팀: 청소년활동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받아서 기타, 웹디자인 강좌 추진했으나 잘 안 됨.

<하반기>

- 기금팀: 직인, 고유번호증 만들었음. 이돈명인권상으로 나뉘어지트 공간 지원 늘림.
- 실용강좌팀: 회계 실용강좌 진행함. 법 강좌, 청소년론강좌 준비를 시작함.
- 월간담회팀: 조지과2(9월), 나이주의(10월), 나이주의2(11월), 정치적권리(12월)
- 송년회: 박근혜와 함께한 송년회였다.

[2013년]

○ 조직형태/체계 : 단체멤버십(들,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 사회, 전교조, 아수나로) + 개인활동가멤버십

<상반기>

- 책임활동가: 파이루, 둠코
- 계절 간담회 준비팀 : 둠코, 거부기, 개굴, 파이루
- 법 강좌 준비팀 : 윤희, 호야, 거부기 (+ 박여사)
- 청소년론 강좌 준비팀 : 우돌, 둠코, 호야, 한날, 난다
- 기금조성팀 : 우돌, 파이루, 지애, 박여사, 개굴

<하반기>

- 책임활동가: 별다, 둠코
- 청소년론 강좌 준비팀 : 수수(코디), 한날(돈), 우돌, 둠코, 난다, 예술 (+중휘)
- 기금조성팀 : 개굴, 기준, 박여사, 지애, 어쓰, 혜원 (+파이루)
- 시민교육박람회 준비팀: 윤희, 예술, 파이루
- 네트워크 백서 발간 행사 준비팀: 개굴, 어쓰, (+공현)

○ 주요사업

<상반기>

- 계절 간담회 준비팀 : 월간담회를 계절 간담회로 전환함 (이른 봄, 청소년활동 지지개를 펴다: 청소년 활동 기상도 그리기/ 여름,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신 간담회)
- 법 강좌 준비팀 : 2~4월 청소년 법강좌(청소년, 법을 탐하다/아름다운 재단 지원) 진행 및 법매뉴얼 제작, 법매뉴얼 발간 기념회 개최(살리는 법, 죽이는 법, 버티는 법)
- 청소년론 강좌 준비팀 :문화(변), 심리(므스), 교육(우돌, 배이상현), 문학(마로), 가족(호연) 주제별로 강좌 내용 마련을 위한 공부 진행 및 강좌의 구체적 밑그림 기획
- 기금조성팀 : 참실대회 등 CMS 모집 활동, 해피빈 사업 추진, 응모 가능한 각종 지원 사업 서치

<하반기>

- 청소년론 강좌 준비팀 : 강좌 실행(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 담론의 허상을 삶으로 뒤집다/전교조 지원) 강사진은 문화(김성윤), 심리(므스), 교육1(자체 진행), 교육2(박복선, 이윤승+청소년활동가), 문학(마로), 가족(호연).
- 기금조성팀 : 브로셔 제작, 후원 행사 진행 (잔액이 부족합니다 활기충전)
- 시민교육박람회 준비팀: 민주시민교육박람회에 법강좌 사업 및 법매뉴얼 제작 전시 (상금)
- 네트워크 백서 발간 행사 준비팀: 가을 계절 간담회를 대체해 백서 발간 기념 행사 진행함 (홈커밍데이 성격도 겸함)

○ 기타

- 문화연대 정○○ 활동가 사건 이후 모호했던 단체 멤버십 정리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백서 발간

- 나름 아지트 시즌3로 이사했음 (현재 효창공원역 사무실)
- 1회 청소년활동가 마당 진행 (우들이 전교조 참실대회 통해 예산 확보, 12월에 공현 둠코 예술이 준비팀 꾸리고 타단체 활동가들과 공동 기획함)

[2014년]

○ 조직형태/체계 : 단체멤버십(들,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 사회, 전교조, 아수나로) + 개인활동가멤버십

<상반기>

- 책임활동가: 별다, 예술
- 기금팀: 혜원, 파이루, 지애, 별다, 어쓰, 박유리, 개굴
- 소식지팀: 공현, 별다, 둠코, 홍이
- 뽀뽀롱수다킹(까까) 준비팀: 박유리, 예술
- 청소년론이후팀 : 예술, 한낱, 둠코, 우돌, 난다

<하반기>

- 책임활동가: 별다, 예술 (예술은 중간에 책임활동가 중단)
- 기금팀 : 개굴, 별다, 지애, 혜원, 유리, 어쓰 (+공현)
- 소식지팀 : 공현, 별다, 둠코
- 뽀뽀롱수다킹(까까) 준비팀 : 공현, 예술, 유리
- 청소년론이후팀 : 난다, 한낱, 우돌, 둠코, 예술
- 양철북 법매뉴얼 출간팀 : 둠코, 예술
- 청활마팀 or 담당자 : 별다, 공현

○ 주요사업

<상반기>

- 기금팀: CMS 모집 노력했으나 난항을 겪음, '그맘 알아요' 지원사업 시작함
- 소식지팀: 정기적 소식지 발행 (소식들/목소리들/덕질들/사람들)
- 뽀뽀롱수다킹(까까) 준비팀: 청소년 활동가들의 일상적 고민을 풀어가는 간담회 진행함 (병역, 대학, 알바)
- 청소년론이후팀: 론 강좌 후속 작업으로 '청소년 문화' 관련 심화 세미나 진행함 (일베, 죽음, 게임 등을 키워드로 잡고 관련 단행본이나 논문, 기사 자료 등 읽으며 토론)

<하반기>

- 기금팀 : 그맘알아요 지원사업 운영
- 소식지팀 : 정기적 소식지 발행
- 뽀뽀롱수다킹(까까) 준비팀 : 탈학교, 탈가정, 연애 간담회 진행함.
- 청소년론이후팀 : 세미나 마무리 및 공부 내용을 공유하는 '작은 발표회' 진행함 (담배,

게임, 정치, 성/연애)

- 양철북 법매뉴얼 출간팀 : 출판사와 책 기획 관련 조율
- 청소년활동가마당팀: 청소년활동가 마당 기획 및 진행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청소년 운동의 현재 점검 및 청소년활동가 선언문 만들기)

○ 기타

- 강○○ 관련 대응 있었음 (접근근지 요청)
- 활동가(어쓰, 타이루, 유리 등) 수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활동가 영입 필요성 증대함

● 2014년 하반기 ~ 2016년 : 어렵사리 이어가며 간신히 숨을 쉬다

하강국면에 접어든 시기. 구성원 숫자가 급감했고, 2016년에는 독자적인 책임활동가를 세울 수도 없었음.

활동을 종료하는 활동가는 있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활동가는 거의 없었음. (있더라도 단기적 결합) 실질적으로 단체 멤버십이 유효했던 조직은 ‘들’이나 ‘아수나로’ 정도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동가가 교체(로테이션)되거나, 보충되지 못했음. (제로섬을 유지하지도 못했던 이유)

본 사업을 잇는 후속사업들이 많았던 시기. 그러나 의미를 제대로 남기지 못하거나, 미처 끝맺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향이 있었음.

[2015년]

○ 책임활동가

공간지기 : 츠베

책임활동가 : 혜원

○ 멤버

별다, 둠코, 츠베, 한낱, 난다, 공현, 우돌, 혜원, 듀요 + 예술

○ 조직 체계

운영팀 : 별다, 한낱, 난다 + 츠베, 혜원 (상반기) => 운영팀에서 회의 준비나 조율을 함.
둠코, 듀요, 공현 + 츠베, 혜원 (하반기)

청소년론이후팀 : 우돌, 난다, 혜원, 한낱, 둠코 + 예술

소식지팀 : 별다, 공현

양철북 법매뉴얼팀 : 둠코, 예술

* 청소년활동가마당기획단 : 밀루, 별다, 듀요, 치즈, 검은빛

○ 주요 사업

▲ 든든기금 운영, 그맘알아요/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2015년 그맘알아요 지원 : 우마미틴, 화야, 여유, 아수나로 (서울, 수원 등)

2015년 꿈만같아요 지원 : 아수나로 10주년 자료집, 대중조직 연대체 추진

▲ 반기 간담회 (두시의 데이트 - 친목도모와 우물모임에서 공부 공유 / 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결과 공유)

▲ 청소년론이후팀 : 팀에서 원래 담배/게임/연애 등 주제로 내부 자료 공부를 했고 작은 발표회를 2014년 가졌음. 2015년에 이어서 강좌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이었으나, EXIT-이상한나라자립캠과 연결하여 론팀에서 연합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음. '찍소리' 워크숍.

▲ 제3회 청소년활동가마당을 2016년 1월에 진행. '고구마와 사이다' 컨셉.

▲ 소식지 활력소가 2년차로 발간됨.

▲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 USB 제작 후원금 모금 등을 기획했으나 이사를 안 가게 되면서 취소함.

▲ 법매뉴얼은 예술의 사정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고, 하반기에 샘플 원고 작업과 출판사 소통을 재개함.

○ 특별한 점

▲ 든든기금 1000만원을 최초로 받아서 운용. 지원 사업, 청소년론팀 운영, 청소년활동가마당 등에 사용됨.

▲ 활기가 사람이 줄며 대외적 활동량을 줄이고 이어나 공간 관리 등의 문제를 많이 논의한 해.

[2016년]

○ 책임활동가

공간지기 : 난다

재정지기 : 혜원

○ 멤버

뚝코, 한날, 날맹, 난다, 공현, 우돌, 혜원, 두요 + 예술, 별다(상반기까지)

○ 조직 체계

청소년론이후팀 : 우돌, 혜원, 한날, 날맹, 뚝코, 별다

소식지팀 : 난다, 두요

양철북 법매뉴얼팀 : 뚝코, 별다

뚝코, 공현, 난다, 우돌, 혜원 (하반기 집필진)

* 청소년활동가마당기획단 : 공현, 난다, 두요, 치리, + 예술

○ 주요 사업

▲ 든든기금 운영, 그맘알아요/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음성지원 새로 추가함.

- 2016년 그맘알아요 지원 : 아수나로(서울, 광주 등), 대중조직 준비 연대체
 - 2016년 꿈만같아요 지원 : 인권교육 워크숍,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성교육 제작
 - 2016년 음성지원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우물모임
 - * 활동가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 사업 대상에 추가
 - ▲ 반기 간담회는 따로 아직 하지 않음. 2-3월 예상? (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발표로...)
 - ▲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출간 기념 행사를 벗과 공동 주최.
 - ▲ 청소년론이후팀 : 론이후팀에서는 2015년에 이어서 '찍소리워크숍' 후속 활동 기획, 논의, 정리해서 원고로 기고할 예정.
 - ▲ 제4회 청소년활동가마당을 2016년 2월에 예정. '더하90%', 연수와 역량 강화 컨셉.
 - ▲ 소식지 활력소가 3년차로 발간됨. (발간 주기가 좀 더 불규칙해짐.)
 - ▲ 법매뉴얼 원고 집필 진행. 약 60% 가량.
- 특별한 점
- ▲ 든든기금 1000만원을 2년차로 받아서 운용. 지원 사업, 청소년론팀 운영, 청소년활동가마당 등에 사용됨.
 - ▲ 청소년운동만의 활동가 대회, 두근두근...?
 - ▲ 별다 성폭력 의혹 제기
 - ▲ 지원 사업과 론팀 등 활기 활동의 한 주기를 종료하고 새롭게 모색이 필요해짐.

● **활동 목적에 따른 주요 사업 평가: 2017년 1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청소년운동 재정 확충: 기금조성/지원사업

- CMS 확대, 성공적 후원행사, 든든기금(2015년/2016년 각각 1000만원) 확보 등을 통해 초기에 비해 재정 안정성 높아짐.
- '그맘 알아요', '꿈만 같아요', '음성 지원' 등 소액의 지원사업이었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치를 수 없었던 사업들의 실행이 가능했음.
- 지속적인 수입처 확보(CMS, 수익 사업 등)가 궁극적인 목표였으나, 논의와 시도는 있었지만 실현하진 못했음.
- 든든기금 역시 한시적 지원금이며, 2017년 성사 불투명. 2년간 내려놓았던 재정 확보 고민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

청소년운동 담론 생산 및 교육: 내부 세미나/강좌사업

- 실용 강좌, 법강좌, 청소년론 강좌 등 다양한 강좌 사업 시도함. 각각의 강좌마다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앞서갔다'는 느낌도 듦. (예: 2013년 청소년론 강좌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지금에 와서 고민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나이주의도 마찬가지.)
- 청소년활동가들이 이론적/실용적으로 어떤 공부에 목말라 있는지 파악하는 것 어려웠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본 적도 있지만, 막상 진행하고 나면 조금씩 미끄러졌음. '청소년운동이 어떤 이론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지' 자체를 감 잡기 어려웠음. 그동안 축적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수도.

- 담론의 생산은 시도했지만, 그것의 유통/보급/활용을 고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활기가 조직 특성상 직접적 이슈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함.
- 청소년활동가들 중 상당수가 대학 거부자였고, 때문에 공부/배움에 대한 대안적인 장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도 있었음. 그러나 활동에 치이거나 생계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 지속적인 고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 많았음. (강좌 끝나면, 끝) 더불어 청소년활동가들의 잦은 교체 역시 단발성에 영향을 미침. 주제를 계속해서 바꾸기 보다는 1~2년 주기로 순환적으로 공부/강좌를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법함.

청소년운동 네트워크: 월례/계절/반기/연간 간담회 및 청소년활동가마당

- 간담회가 가장 활발했던 건 2012년이었음. 운동적 필요도 있었으며, 우리도 하고 싶은 주제가 많았음. (조직화, 나이주의 등) 각 주제에 대한 고민이 청소년운동 안에서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했다기보다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 가까웠음. 그러나 이 때의 간담회를 시발점 삼아 조직화를 고민하거나, 나이주의를 연구하는 모임들이 등장하기도 했음.
- 한 해 간담회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던 이유: 활기 내부 역량의 소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청소년운동 지형 변화와도 연관 있음. 청소년운동에 여러 모임/조직들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를 여는 통로가 다양해졌음. 더불어 여러 판에서 이미 얼굴을 두루 보는 사람들끼리 간담회에 모이는 경향이 짙어졌던 때도 있었음.
- 청소년활동가마당: 올해로 4회째 개최함. (평가 보충할 필요 있음;;; 사전 논의 자리에서 빠트림)

2. 활기의 현재적 고민들

발제 : 공현

● 활기의 ‘활기’는 왜 줄어드는가?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도 점점 줄고 있고, 활기에서 하고 있는 대외 활동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활기에서 오랫동안 함께해 온 이들은 생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있고, 새롭게 활기에 합류하는 활동가들은 적다. 활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들은 활기 외에도 다른 단체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활기에 집중하기 어렵다.

넓게 봐서 이는 청소년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구조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 청소년운동은 활동 연차로 봤을 때 활동을 시작한 지 1~3년 정도 된 사람이 많고, 6~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조금 있으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는 청소년운동을 새로 시작한 뒤에 몇 년 활동하다가 20대 초중반이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청소년운동에 계속 남고 그 외의 사람들은 (생계/군대/대학/관심 저하 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어지는 활동가가 부족한데, 활기는 특히나 그 위치상 청소년운동을 몇 년 하고난 뒤 청소년운동 전반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함께하기 좋은 단체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수는 적고,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

활기 자체의 문제로 봤을 때는, 활기의 활동이 다른 청소년운동에 그 의미와 효과를 인정받기가 어렵고 우선순위가 밀리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활기는 활동의 경력과 나이가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 쉬운데, 현재 활기 재정상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보니 더욱 활동을 권하고 잡아두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활기에 남아있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쉽없이 꽤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소진됨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 ‘활동의 기금’

처음 출발하던 때에 비하면 활기의 CMS 수입은 늘어난 편이고 과거 후원행사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입을 마련하여 청소년운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든든기금 외의 안정적 기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정기적 후원을 모집하는 것의 어려움은, 청소년운동 자체가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활기의 위치와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에게 ‘청소년운동에 후원’하려면 직접 활동하는 단체를 후원하면 되지, 왜 활기를 후원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소년운동 단체들이나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 등 활기를 후원하는 것의 장점과 의미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브로셔나 후원 안내 등에서도 활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지원 사업 등을 분명히 보이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1-2년간의 소강 상태를 벗어나, 그밖에도 수입처 마련에 대한 모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활동가들의 공부의 기반

한편으로 활기가 만들고자 했던 다른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운동의 담론적 기반과 활동가들의 학습 기반이었다. 활기가 최근에 기금 지원 등을 통해 우물모임, 자료집 발간, 캠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했고 그것이 활동의 간접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기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활기가 주도적으로 청소년운동의 담론 만들기과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지는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활기가 청소년운동 현장의 리듬(일정 등)이나 문제의식과 거리감이 있고, 활기에서 논한 것들이 다른 청소년운동 전반에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하다는 것이 가장 고민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활기에서 청소년운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단독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청소년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나 활동가들이 연결되는 교육환경, 함께 만드는 과정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있는 자료나 연구 등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또한 축적되어 있는 청소년운동의 자료와 새로 시작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전수 등이 활기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제의 교육을 계속 기획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교육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다.

● 모아서 : 활기의 청소년운동 안에서의 역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청소년운동 안에서 활기의 역할과 의미일 것이다. 활기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인적 교체가 빠르며 축적된 것이 부족한 청소년운동에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활기 자체도 청소년운동의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활기가 청소년운동에서 잘 알려지기 어렵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알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있다.

활기가 청소년운동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가시화할 수 있는 활동 기획과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단체나 활동가들에게 활기에게 바라는 것을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으로는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러나 돈 문제는 활기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나, 돈을 통하지 않고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활기의 역할 강화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운동 단체들 사이의, 그리고 청소년운동과 다른 운동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 등을 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도 활기는 간담회와 청소년활동가마당 등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다. 최근에 사회 정세상 새롭게 청소년운동 주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운동이 성장하면서 청소년운동에 대한 몰이해나 오해, 악의 등도 그에 대한 반발로 자라나고 있다. 활기에서 청소년운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운동이 다른 여러 사회적 자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청소년활동가들은 활기에 무엇을 바라는가

: 활기 바깥에서, 활기를 말하다 - 인터뷰를 통해 살펴봄 (인터뷰이 : 밀루, 주리)

발제 : 난다

1. 청소년 운동에서 필요한 역할임에도 나 혹은 나의 모임/조직이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정 이슈 대응은 제외)

- 밀루(아수나로 광주지부) 활동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민사회, 다른 단체/활동가들과의 연대가능성과 연대방식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활동가로서 요구받거나 기대 받는 포지션이 있는데, 기대만큼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곤 한다.

밀루 : 다른 시민사회랑 관계 맺는 것. 저와 다른 모임 구성원들에게 어려운 것 같다. 다른 운동단체나 교육단체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곳에 초대받거나 해서 갈 일이 있다. 그런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특별하고, 기특하고, 기대되는 존재가 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말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문제제기하고, 거기에서 제안하는 것들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쉽게 내쳐진다는 느낌이 있다. 또 학교를 다니는 분들의 경우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일상적인 동지로 불리지 않는 느낌이 있다.

- 밀루 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의 연대 요청/제안이 기존 활동가들 사이의 친분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비교적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회원)들은 지역단체와 만날 기회가 적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어리고 젊은 여성, 청소년활동가들을 대하는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태도가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연대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지만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위해서 연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다.

밀루 : 최근에 지역단체에서 인권교육 하시는 분들이 아수나로랑 같이 활동하고 교육도 소개시켜주시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커넥션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다보면 그나마 오래 활동했던 저나 빈둥은 되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이어지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른 아수나로 회원들에게 늘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는 하지만 힘들거나 어려운 걸 “꼭 가야돼요~”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 영향력 있고 단체에서 좀 우두머리 하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본다는 느낌이 항상 있다. 조직 안에서도 한 사람이 대표 노릇하면서 젊은 여성 활동가들은 좀 통쳐져서 불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게, 밖에서도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불편한데 저희한테도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 같고... 피라미드 같다. 이런 식으로 연대해도 되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하려면 연대는 필요하니까 고민이 든다.

- 주리(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는 청소년운동 안에서의 폭력이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대응방식이 고민이다. 또 청소년운동의 현재의 상황을 함께 진단/파악하고 활동 방향과 계획을 세울 때 크고 넓은 전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다.

주리 : 우리가 어떤 원칙이나 방향을 갖고 단체 내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게 어렵고 역량이 없는 것 같다. 활기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의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나 약속을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 한 해 사업 또는 일상사업을 계획할 때에도, 그냥 당장 하고 싶은 것이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중요한 결정요인이긴 하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의 계획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어떤 걸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다.

2. 활기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것을 3가지 꼽는다면?

밀루 : 청소년활동가마당, 그 맘 알아요, 꿈만 같아요. 아무래도 지원사업이 많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신경 쓰이고 도움이 된다.

주리 : 그 맘 알아요, 꿈만 같아요, 같은 재정 지원 사업. 상시적으로 공간 운영 하고 있는 것. 간담회 같은 자리들. 두시의 데이트, 월간담회, 청소년론 작은발표회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3. 활기는 청소년 운동 사이의 네트워킹, 기금이나 물품 등 지원, 청소년 담론이나 공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목표로 만들어진 곳이다.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의 활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는지? 또는 각각의 목표나 역할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밀루 활동가는 청소년운동에 대한 담론 연구와 공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는 지역단체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청소년단체들과의 원활한 연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밀루 : 청소년 담론 연구나 공부. 청소년인권이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나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운동 내부에서도 필요한 것 같다. (...)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공론을 일으키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커넥션을 맺고 토론하면서 좀 청소년인권적인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개인 활동가들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교육이나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 주리 활동가 또한 청소년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운동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운동사와 활동 의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리 : 최근 광장에 나와서 생긴 단체/조직들이 청소년인권이나 학생인권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동안 청소년운동이 고민해오고 쌓아온 성과를 이어받지 못하고 맨땅에서 시작하는 느낌이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제대로, 계획성 있게 활동이 이어지지 못

하고,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들을 청소년운동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냥 청활마 오라고 초대장 보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 주리 활동가는 청소년 운동 사이의 네트워킹 역할을 활기가 적극적으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청소년운동의 큰 전망/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1번 질문에서 활동방향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욕구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였다.

주리 :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 만약 청소년운동이 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하면 그런 논의를 하고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주체가 마땅치 않은 느낌이라 활기가 그런 자리를 열어주었으면 한다.

- 그 밖에도 공간의 질실함, 재정 지원과 기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밀루 : 공간이 먼저인 것 같다. 지금도 노동당 광주시당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공간은 정말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이진 좀 답이 없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다.

주리 : 현재 활기가 하고 있는 활동인 공간 운영이나 기금 마련, 이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운동 사이의 네트워킹 부분, 간담회를 열거나 청활마도 그런 활동인 거 같고, 이런 부분은... 엄청 성과가 많이 났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계속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정리]

- 공간 운영/지원, 기금 마련/지원 사업은 기본적 역할이고, 계속 필요하다.
- 청소년운동이 지향하는 내용, 의제들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 청소년운동 사이의 네트워킹 활성화, 청소년운동의 활동방향과 전망을 나눌 필요가 있다.

(결론 : 다 해야 하나...?)